

## 만경강 상류에 서식하는 담수어류의 다양성과 보존

김익수 · 박종영 · 양 현

전북대학교 생물과학부

### 서 론

만경강은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시봉리에서 발원하여 고산천, 소양천 및 전주천이 합류하여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유로 98.5 km, 유역면적 1,601.7 km<sup>2</sup>이다. 그동안 만경강 일대에 관한 어류상은 수역별로 보고된 바 있지만 (김과 김, 1975; 이 등, 1980; 이, 1990), 어류 다양성 보존과 관련하여 멸종 위기 및 보호대상 담수어류의 서식현황 등에 관하여 최근에 조사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 조사방법

만경강 상류수역의 고산천, 소양천 등의 수역의 14개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2000년부터 2001년 까지 조사지점별 5회 이상 조사하였다. 어류의 표본은 투망과 족대 및 손그물 등을 사용하여 포획한 후 표본을 김과 박(2002)에 의하여 동정하고 조사를 요하는 일부 표본을 제외한 모든 표본을 포획된 장소에 방류하였다.

### 결과 및 고찰

14개 수역에서 채집된 어류는 모두 6목 14과 50종이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어류가 채집된 수역은 완주군 삼례읍 하리로서 7과 33종이 출현하여 주목되었다. 채집 확인된 어류 가운데 우세하게 출현된 어류는 피라미, 줄납자루, 납지리, 갈겨니, 돌고기, 긴몰개, 납자루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유종으로는 각시붕어, 줄납자루, 가시납지리, 감돌고기, 쉬리, 중고기, 참중고기, 긴몰개, 몰개, 몰마자, 왜매치, 참중개, 눈동자개, 자가사리, 통사리, 꺾지, 얼룩통사리 17종으로 만경강 출현종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들 가운데 각시붕어, 긴몰개, 돌마자, 참중개 등은 14개의 조사지점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였다. 본 조사수역에서는 환경부의 멸종 위기종인 감돌고기 *Pseudopungtungia nigra* Mori는 5개 조사지점에서 출현하고 있으며(0.8%), 보호 대상 어류인 통사리 *Liobagrus obesus* Son et al. 는 1개의 지점에서(0.01%) 서식하고 있어 그들 서식지의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외래 도입종인 블루길(0.02%)과 베스(0.4%)가 출현하였다.

감돌고기와 통사리의 서식지 및 생물학적인 특징에 관하여 조사된 결과를 중심으

로 보호하고 위협 요인에 대하여 보고한다.

## 참고문헌

- 김익수. 1975. 전주천의 수질오염과 어류군집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육수학회지. 8: 7-14.  
김익수, 박종영. 2002. 한국의 민물고기. 교학사.  
이충렬. 1990. 만경강 하구 생태계 구조와 기능-어류군집의 동태에 관하여. 한국생태학회지. 13: 267-283.  
이충렬, 윤일병, 김익수. 1980. 만경강 어류군집의 동태. 한국육수학회지. 13: 23-38.